

“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
(요한복음 15장 5-9절)

2021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2021년 1월 19일(화) 오후 7시 • YOUTUBE 방송

기도회 순서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정교회와 개신교회를 대표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창립한 협의체로, 2002년부터 본격화된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활성화와 일치 증진의 성과에 힘입어, 2014년 5월 22일 창립하였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30년, 개신교 130년, 정교회 120년. 이 역사 안에서 한국 그리스도교는 일치와 협력의 경험보다는 선교 전략상의 의도적인 차별화 정책으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지내왔고, 개신교 내부에서의 많은 교파 분열은 이러한 인식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11)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선교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교파 간의 신앙적 친교를 이루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소개	4
2021년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6
기도예식	8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중요한 날들	22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역사	23
정교인,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함께 하는	24
6기 일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소개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o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그리스도인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직제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의 공동 후원으로 조직된 국제준비위원회는 스위스의 뇌샤텔 주에 위치한 아루즈, 그랑샹에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집 준비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앞서, 세계교회협의회 요청으로 그랑샹 공동체가 주제를 정하고 초안을 마련하였다. 국제준비위원회는 그랑샹 공동체 전체가 몇 개월에 걸쳐 기울인 노력으로 마련한 이 초안을 자료집 작성의 기초로 삼았다. 9월 모임에는 국제준비위원회와 함께 네 명의 그랑샹 자매들도 참석하였다. 모임은 일치평의회 앤소니 커러(Anthony Curren) 신부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위원장인 오다이크 페드로소 마테우스(Odair Pedroso Mateus) 목사가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초안 준비 지역 모임이 선정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요 15:5-9 참조). 이 주제를 통하여 그랑샹 자매들이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관상의 삶으로 얻은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기도의 열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형제들과 이루는 친교,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연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다.

국제준비위원회 위원

Ms. Anne-Noëlle Clémen - 그리스도인 일치 단체(Unité Chrétienne)

Revd. Peter Colwell - 영국과 아일랜드의 함께하는 교회들 부사무총장

Revd. Anthony Currer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Dr. Ani Ghazaryan Drissi -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사무국 프로그램 총괄

Ms. Virag Kinga Mezei - 세계교회협의회

Dr. Hanne Lamparter - 독일 루터교회

Sr. Leticia Candelario Lopez - 하느님 말씀 선교 형제회(싱가포르)

Revd. Dr Odair Pedroso Mateus - 신앙과직제위원회 위원장

Revd. Father James Puglisi - 속죄회 일치 센터

Revd. Dr Mikie Roberts - 세계교회협의회 영성 생활 프로그램 총괄

Dr. Clare Watkins - 로햄턴 대학교

그랑상 공동체 참석자

Sr. Anne-Emmanuelle Guy

Sr. Gesine Rohrbach

Sr. Embla Vegerfors

Sr. Svenja Wichmann

사무지원

Mr. Alexander Freeman, 세계교회협의회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내 사랑 가운데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5-17)

† 평화를 빕니다.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입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8천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80만 명(2020년 12월 22일 현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사랑과 평화의 걸음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2021년 일치기도주간 기도자료집은, 1930년대 스위스의 개혁파 여성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스위스의 그랑상 수도 공동체가 준비했습니다. 설립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의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은 공동체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공동체 생활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938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유럽이 혼란에 휩싸이자 공동체의 리더였던 즈느비에브 미슐리(Geneviève Micheli, 후에 마더 즈느비 에브로 칭함)는 “우리는 휘황찬란하지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빠르고 완벽한 성취들이 그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듯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 시끄럽고 빠른 이 집단 광기 안에서 우리 문명은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며, 인류 앞에 닥친 위기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랑상 수도 공동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요한 15:8) 우리가 예수님께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교회 전체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요한 15:7-12 참조) 마치, 둥글게 그린 원의 바깥에 선 여러 사람이 원의 중심으로 나아갈수록 서로 가까워지듯이, 주님 곁으로 가기를 바라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주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설수록 작은 오해에서 기인한 온갖 분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욕망이 멎어서 마침내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고통과 분쟁까지도 막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화해를 위한 대가와 희생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전해줄 때, 세상도 희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신비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랑상 수도 공동체가 경험한 위기가 있었듯 우리 시대는 낮설지만 낮익은 위기에 봉착했습

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감염병이 그것입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생태계의 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박쥐가 세상으로 나오면서 137종 중 61종의 인수공통 바이러스도 함께 왔고 그 결과 온 세상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AIDS, 광우병, 살모넬라, 라임병, 한타바이러스 등 이 모든 전염병이 인간의 문명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생동물의 바이러스 감염, 동물의 유전자 변이,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된 세균의 출현, 진드기에 의한 신종 감염병처럼 코로나19도 이렇게 인간이 초래했습니다.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에 “내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씀을 곱씹으며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구원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라 간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증언하듯이 ‘피조세계도 주님께서 이루실 자유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 8:18-25 참조). 오늘날 이 간절한 희망은, 위기가 커진 것만큼 더욱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분열을 참회하고 새로운 희망을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일치를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분열했던, 힘있는 이가 약한 이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서, 또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연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우리의 일치가 모든 사람의 삶의 일치로 이어졌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생명의 일치, 우주적 일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랑상 수도 공동체가 매일 아침에 드린 “주님의 나라가 오시도록 기도하고 일합시다.”라는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만남이 되도록 합시다. 코로나19가 깨우친 일상과 이웃, 자연과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의 소중함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새로운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한국천주교회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정호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건희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장미선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유영희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인도: 임민균 신부 (한국천주교, 가톨릭대학교)

그 동안의 합의에 의해서

- (1)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합니다.
기도회에 사용되는 용어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2) 개신교찬송가, 혹은 가톨릭성가의 가사는 그대로 실습니다.

.....

1968년 천주교와 개신교 성서학자를 중심으로 성경의 ‘공동번역위원회’가 결성되어 1971년 신약성경이, 1977년 구약성경이 완역되어 『공동번역 성서』로 출판하였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와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공동 문서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치기도회 순서

기도로 초대

인도자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에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드리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찬미합시다.

시작 성가 - 진리의 성령 (가톨릭성가 143장/ 개신교찬송가 187장)



1. 진 리 의 성 령 오 - 시 - 어
 2. 위 로 의 성 령 오 - 시 - 어
 3. 일 치 의 성 령 오 - 시 - 어
 4. 사 랑 의 성 령 오 - 시 - 어



당 신 의 교 회 돌 보 - 시 - 며
 주 님 의 은 총 주 흡 - 시 - 며
 우 리 계 마 화 음 주 흡 - 시 - 며
 민 는 이 마 음 태 우 - 시 - 며



세 상 의 빛 을 밝 - 히 - 는
 마 음 을 의 빛 을 밝 - 히 - 는
 주 님 의 의 빛 을 밝 - 히 - 는
 이 웃 에 말 붐 을 밝 - 히 - 는



사 생 도 되 게 하 읊 소 서
 하 나 명 에 게 이 하 읊 소 서
 랑 의 되 게 하 읊 소 서
 의 되 게 하 읊 소 서

환영인사

❖이홍정 목사(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공동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말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의 영과 함께.

말은이 그리스도 안의 자매형제 여러분, 스위스의 그랑샹 공동체 자매들이 선정한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주제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입니다.

이는 하느님께 와서 그 안에 머무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느님의 깊은 뜻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열매를 맺고 모든 이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다름을 만나면 쉽게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어 서로의 다른 점만 보며 선을 긋는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세 순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분 사랑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신 그분께 돌아옵니다. 일치의 길은 하느님과 이루는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름은 다른 이들과의 일치와 화해를 찾고자 하는 바람을 북돋워 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열매 곧 우리 내면과, 서로 간의 분열과, 세상의 분열을 치유하는 은총입니다.

인도자 평화 안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피 주시는 포도밭 농부이시며, 저희를 부르시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모든 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이들의 다름을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은, 저희 사이에는 적대심이 자라납니다.

주님, 오시어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용서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한데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제1 기도 |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 개인의 내적 일치

시편 103:1-2,15-17, 20-22

❖손정명 수녀(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위원회)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마라.
…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야훼의 사랑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 그의 모든 천사들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그 말씀의 일꾼인 능력자들아, 그의 말씀 익히 들어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 뜻을 받들어 모시는 신하들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야훼를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요한의 복음서 15:5-17

❖박인곤 보제(한국정교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벼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벼이라고 부르겠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잠시 침묵합니다.

중보 기도

- ❖1. 정의석 목사(커다란숲교회)
- ❖2. 장숙희 수녀(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 ❖3. 손규호 집사(부산ncc 회장)
- ❖4. 김인주 목사(제주기독교협의회 부회장)

기도자 1 사랑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를 찾아 주시고, 하느님 우정을 받아들이 그 우정 안에 머무르도록 초대하셨으니, 저희가 이 초대에 더욱 깊이 응답하여 완전한 삶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회 중 저희 마음의 기쁨은 하느님께 있나이다.

기도자 2 생명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찬양하며 서로를 하느님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부르셨으니, 하느님의 사랑의 눈길로 저희 마음이 열려, 저희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받아들이게 하소서.

회 중 저희 마음의 기쁨은 하느님께 있나이다.

기도자 3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를 불러 모으시어 예수님의 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로 만드셨으니, 사랑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의 모임이나 지역 교회 일치 모임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저희가 다함께 기쁨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회 중 저희 마음의 기쁨은 하느님께 있나이다.

기도자 4 포도밭 주인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를 부르시어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시니, 저희가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인도되어 가정과 일터에서 그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경쟁과 긴장을 떨치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회 중 저희 마음의 기쁨은 하느님께 있나이다.

인도자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가 하는 자신만의 활동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내적 침묵으로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음과 생활의 관심사와 생각을 내려놓도록 초대받습니다. 이 침묵 안에서는 하느님만이 활동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며 그분 안에 쉬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행동: 침묵

잠시 침묵한다.

성가 - 하나님 사랑은 (개신교 찬송가 299장) *1절만 부릅니다.

1. 하 나 님 사 랑 은 온 전 한 참 사 랑
 3. 그 사 랑 앞 에 는 풍 파 도 그 치 며

내 맘 에 부 어 주 시 사 충 만 - 케 하 소 서
 어 두 운 밤 도 환 하 니 그 힘 - 이 크 도 다

제2 기도 |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 일치

시편 85:1-4, 9-13

✧정병준 목사(서울장신대학교)

야훼여, 당신 땅을 어여뻐 여기시어 귀양살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저희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셀라) 당신의 격분을 말씀히 거두시고 타오르는 진노를 잊으셨사옵니다.

우리 구원의 하느님,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소서.

...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이시리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돌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10-13ㄱ

✧김광년 목사(신내감리교회)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내 형제 여러분, 나는 클로에의 집안 사람들한테 들어서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울로였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잠시 침묵합니다.

중보 기도

- ❖1. 김한나 교수(성공회대학교)
- ❖2. 장영주 사관(구세군한국군국)

기도자 1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교회 안에 의혹과 증오와 오해가 멈추게 하시고, 저희를 갈라놓는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용서와 화해에 열어 주시어, 저희가 바른길로 되돌아오게 하소서.

회 중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자 2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저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어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주님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복음에 충실하여 박해받는 모든 이를 버려두지 않으시니,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조력자들을 지켜 주소서.

회 중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인 도 자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일치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며, 그 평화를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행동: 평화의 인사

모든 이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성가 - 하나님 사랑은 (개신교 찬송가 299장) *3절만 부릅니다.

1. 하 나 님 사 랑 은 온 전 한 참 사 랑
3. 그 사 랑 앞 에 는 풍 파 도 그 치 며

내 맘 에 부 어 주 시 사 충 만 - 케 하 소 서
어 두 운 밤 도 환 하 니 그 힘 - 이 크 도 다

제3 기도 |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의 일치

시편 96:1-3, 10-13

✦범은경 장로(광주 순례자복음교회)

새 노래로 야훼를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야훼를 노래하여라.
야훼를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쁜 소식 날마다 전하여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못 민족, 만백성에게 이를 알려어라. ... 이 땅을 든든하게 세우신 야훼 앞에서 “야훼가 왕이시다.”고 만방에 외쳐라. 만백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도, 거기 가득한 것들도 다 함께 환성을 올려라. 들도, 거기 사는 것도 다 함께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성을 올려라. 야훼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다. 그 앞에서 즐겁게 외쳐라. 그는 정의로 세상을 재판하시며 진실로써 만백성을 다스리신다.

요한의 묵시록 7:9-12

❖ 최태성 목사(대조동루터교회)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효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모두 옥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옥좌 앞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느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잠시 침묵합니다.

중보 기도

- ❖ 1. 우시홍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무)
- ❖ 2. 이환희 청소년(평택장로교회)
- ❖ 3. 박경숙 선생(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1기 수강생, 봉사자)
- ❖ 4. 원계순 권사(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회장)

기도자 1 생명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문화와 신앙표현, 전통, 민족들을 풍성한 선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용기를 내어, 인종, 계급, 성별, 종교에 바탕을 둔 불의와 증오에 맞서 싸우고, 저희와 같지 않은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게 하소서.

회 중 평화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저희의 희망은 하느님께 있나이다!

기도자 2 자비로우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느님과 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됨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회 중 **평화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저희의 희망은 하느님께 있나이다!**

기도자 3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겪는 삶의 역경을 아시니, 자비의 영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가 시간과 삶과 물질을 궁핍한 모든 이와 나누게 하소서.

회 중 **평화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저희의 희망은 하느님께 있나이다!**

기도자 4 성령님, 상처 입은 피조물의 부르짖음과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어, 저희가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창조 세계의 일부로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회 중 **평화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저희의 희망은 하느님께 있나이다!**

행동: 중심을 향하여 모여 ...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가자의 도로테우스의 글에서 영감을 얻어

인도자 우리는 치유해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봉사자가 되라고 부름받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느님 안에 머물 때에야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땅 위에 그려진 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원이 세상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해진 사람들이 중앙에 놓인 초 주위에 원을 이루며 서 있다.

인도자 원의 중앙은 하느님을 가리키고, 중앙으로 향하는 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열망하며 원의 중앙을 향해 걸어갈 때 ...

초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몇 걸음 다가간다.

인도자 중앙에, 곧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더 가까워질수록 ...

초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중앙으로 다가간다.

인도자 그들은 하느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초를 든 사람들이 중앙에 다다르면, 각자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인다. 그들이 중앙에 다
함께 서면, 모두 침묵 가운데에서 잠시 기도한다.*

짧은 침묵

강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 김희중 대주교(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공동의장,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주님의 기도

인도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회 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성가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개신교찬송가 94장, 가톨릭성가 61장)



1. 주예 수보다더 귀한것 은없네 이세 상부귀와 바꿀수 - 없네
 2. 주예 수보다더 귀한것 은없네 이세 상명예와 바꿀수 - 없네
 3. 주예 수보다더 귀한것 은없네 이세 상행복과 바꿀수 - 없네



영죽 을내대신 돌아 가신 그늘 라운사 랑 잊-지 못 해
 이전 에즐기던 세상 일도 주사 랑하는맘 뻗-지 못 해
 유혹 과핍박이 몰려 와도 주섬 기는내맘 변-치 못 해



세상즐 거움 다-버 리고 세상자 랑 다 버렸네 -



주예 수보다더 귀한것 은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

인사

❖ 이경호 주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인도자 영성과 연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분의 성령, 모든 불의와 억압에 대항하여 행동할 용기와 지혜의 영을 받습니다. 다 함께 낭독합시다:

회 중 하느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고 일합시다.
 하루종일 하느님 말씀이 일과 휴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이 되게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의 침묵을 유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릅시다. 참행복의 정신인 기쁨과 단순함과 자비로 충만해집시다.”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은 날마다 이 말을 함께 낭독한다.

파견과 강복

❖참석한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축복합니다.

말은이 하나 되게 하시어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회 중 희망의 하느님,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화로 저희를 채워 주시
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안에 희망이 넘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
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침 성가 - 하나되게 하소서 (가톨릭성가 39장)



1. 성 - 부 여이사람들 이 아 버 지의뜻을따
2. 성 - 부 여내게말기 신 이 사 람을지키시
3. 성 - 부 여사람들에 게 아 버 지를증거하



라 진 리 위해 몸바치 는 사
고 나 당 신과 하나이 듯 이
며 당 신 나를 사랑하 고 내



람 이 되게 하 소 서 성 부 나를 이 -
사 람 들 도 모 두 가 하 나 되 게 하 -
안 에 항 상 계 시 듯 내 생 명 을 다 -



세 상 에 보 내 심 과 같 - 이 나 도
옵 소 서 아 버 지 말 씀 - 은 모 두
바 처 서 사 랑 하 오 리 - 니 모 두



사 도 들 을 - 세 상 에 파 견 하 옵 니 다
진 리 이 며 - 생 명 의 말 씀 이 옵 니 다
아 버 지 의 - 사 랑 을 알 게 하 옵 소 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중요한 날들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나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티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기도주간의 준수를 장려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 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 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 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작성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역사

- 1965년 대한성공회 천주교 상호 방문 기도회 개최
- 1986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8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9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90년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1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2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서울복음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3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4년 한국기독교회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5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96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7년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대성당 (설교: 한국정교회)
- 1998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9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0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1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설교: 천주교)
- 2002년 천주교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3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중앙루터교회 (설교: 천주교)
- 2004년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설교: 천주교)
- 2006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7년 성공회 대전교구 청주수동성당 (설교: 천주교)
- 200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보문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9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0년 천주교 부산교구 중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1년 구세군대한본영 아현교회 (설교: 천주교)
- 2012년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3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목민교회 (설교: 천주교)
- 2015년 한국 천주교 명동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주중앙교회 (설교: 천주교)
- 2017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옥수동루터교회 (설교: 천주교)
- 2018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9년 한국구세군 구세군영등포교회 (설교: 천주교)
- 2020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쌍암동성당(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21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유투브 생중계)(설교: 천주교)

정교인,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함께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6기) 수강생 모집

- 일 시: 2021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미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의 예정)
- 수강비: 10만원(교재비 포함)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자목회자 가능)
- 문 의: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02-743-4471

강사 (*변경 가능성 있음)

송용민 신부	독일 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민균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종훈 신부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윤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찬석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협성대학교 교수
조현철 신부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고계영 신부	로마 교황청립 안토니오 대학교, 작은형제회
정경일 박사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장영주 사관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커리큘럼(*변경 가능성 있음)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2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 :정교회와 천주교회
3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 :개신교회,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교회일치운동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	
5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6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누가 교회인가?”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	
8강	오늘의 생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9강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10강	(종강)종합토론,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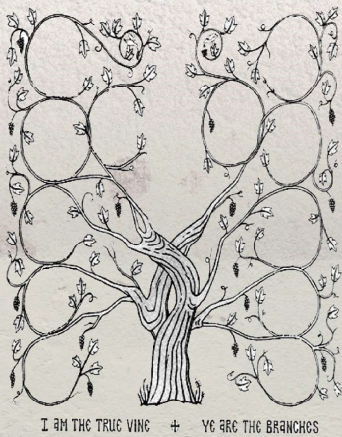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0312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4471

팩 스 · 02-744-6189

www.fno.or.kr(준비중)



"나는 포도나무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포도나무 중심에 그리스도가, 가지에는 신자들이 생명으로 얽혀 있는 많은 이콘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측은 로마의 성 클레멘트 성당의 모자이크화 "생명의 나무"입니다.